

다시 뛰자, 2009 희망 행진곡

(3) MOS 국내대회 우승한 광주여성 박혜명양

워드의 달인... "올해는 세계제패"

광주여성 박혜명(17·인터넷 비즈니스과 2년) 양은 2008년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컴퓨터를 다루기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돼 '2008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스페셜리스트(MOS)' 국내대회에서 워드부문 우승을 차지했고, 한국 대표 자격으로 세계대회까지 참가했기 때문이다.

박 양의 성과는 쟁쟁한 서울지역 전문가 고교생들을 물리친 것이어서 더 빛난다. 당시 대회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력 상품인 오피스 프로그램 워드·엑셀·엑세스·파워포인트 등을 얼마나 능숙하게 다루느냐를 겨뤘다.

이 때문에 박 양은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5~6시간을 투자해 '워드의 달인'이 됐다. 세계대회에 참가했을 때는 170여개국의 대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높은 벽을 실감하기도 했다.

"고등부와 대학생부를 나누던 이전의 대회 방식과 달리 올해는 통합됐다"고요. 고등학생끼리만 경기를 했다면 입상할 자신이 있었는데... 하지만 대회 참가 자체로 자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박 양이 대회를 통해 얻은 것은 경험 뿐이 아니다. MOS 워드 1급, 컴퓨터 활용능력 1급, 파워포인트 B급 등 여러방향을 다룬다는 채 대회를 준비하면서 따낸 관련 자격증이 8개나 된다.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박 양은 "내년에 광주에서 기능경기대회가 열리는데 꼭 참가하고"



'2008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스페셜리스트(MOS)' 국내대회에서 워드부문 우승을 차지한 박혜명 양이 2009년 새로운 도전을 위해 방학도 잊은 채 워드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방학 반납 구슬땀... 관련 자격증 8개 5월 정보올림피아드 출전 '부푼 꿈'

싶다"며 "우선 3월께에 열리는 지역 예선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겨울방학도 컴퓨터 앞에서 보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양의 지도를 맡은 김수진(여·29) 교사는 "혜명이는 좀 버겁다 싶은 숙제를 내줘도 단 하루를 빼먹은 적이 없을 정도로 성실하다"며 "몇 가지 단점만 보완하면 전국대회 입상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양의 단점은 다른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느린 타자속도. 컴퓨터를 늦게 시작한 탓이다. 대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타자속도가 1분당 600~700타인데 비해 박 양은 400~500타에 머무르고 있다. 요즘도 하루 한 시간은 꼭 타자연습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다.

기능경기대회 정보기술 부문은 워드만 능숙하게 다루면 됐던 MOS 대회와 달리 워드와 함께, 엑

셀, 파워포인트, 엑세스, 일러스트레이터, VBA 프로그래밍 등 6개 프로그램을 다 잘해야 한다. 대회는 무려 3일 동안 열린다.

5월에는 정보올림피아드에도 출전할 계획이다.

"몰랐던 워드의 기능을 알았을 때, 그리고 그 기능을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가 가장 기쁘요. 정보올림피아드 출전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공부의 기쁨을 깨달았기 때문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어요."

무던함 속에 살짝 내비치는 박 양의 미소가 박 양의 2009년을 희망과 도전으로 더욱 밝게 하는 것 같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화순 전남대병원

감마나이프 수술

지방 첫 1천건 돌파

화순 전남대병원이 지방에서는 최초로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 1천건을 돌파했다.

4일 화순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뇌종양 클리닉·감마나이프센터의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 건수가 지난해 말로 1천건을 돌파했다.

이는 2004년 화순 전남대병원 개원과 함께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이 도입된 후 4년여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뤄진 것이며,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최하다. 시술 유형별로는 ▲전이성 뇌종양(511건) ▲뇌수막종(214건) ▲청신경초종(62건) ▲뇌동정맥기형(62건) ▲삼차신경통(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이란 머리를 열지 않고 하는 뇌수술로, 방사선을 이용해 불록제로 햇빛으로 종이를 태우듯 병소를 파괴하는 치료법이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41분 해질 17시 34분 달돋이 12시 11분 달질 00시 59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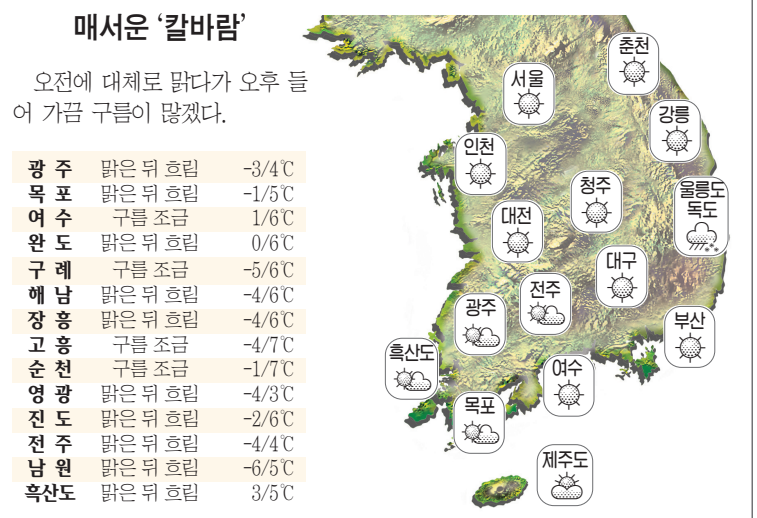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temperature, wind, and precipitation. Includes a section for '주간날씨' (Daily Weather) with icons for sun, clouds, and rain.

"인권위 광주사무소 존치해야"

행안부, 지역사무소 폐지 개편안 반발

최근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지 및 인원감축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광주 지역에서 인권위 광주사무소 존치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인권위 광주사무소의 진정·상담·안내 등 인권관련 업무량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작정 폐지보다는 존치를 통해 인권 시각지대에 놓인 소수자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지역사무소 업무 처리 건수는 설립 첫해인 2005년 진정

77건, 상담 104건 등 288건에 그쳤으나 ▲2006년 2천960건 ▲2007년 3천823건 ▲2008년 4천711건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급증했다.

인권위도 광주를 비롯한 3개의 지역사무소 업무처리 실적 등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난해 12월 초순 인권위 전일위원회를 열고, 내내 인원을 조정해 3개 지역사무소의 인원(기존, 광주 8명·부산 7명·대구 9명)을 늘리기로 결정하고 행정안전부에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세부적인 계획이나,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인권위 인력의 49%를 줄이고, 지역사무소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인권위에 통보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남대 법대 조상균 교수는 인권위 축소 움직임에 대해 "현 정부 집권 초부터 '촛불집회 강경진압 자체 요구'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도 폐지' 등에서 보여 준 인권위의 입장에 대해 예산과 인력조정 권한을 전 정부가 우회적으로 인권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특히 지역의 인권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인권 침해 예방활동 등을 펼치고 있는 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지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Advertisement for '김영편입학원' (Kim Young Pienip Hakwon) featuring text about entrance exam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website www.kimyoung.co.kr and phone numbers.

Advertisement for '세상 모든 아이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I wish all children in the world were happy). Features a group of smiling children and a large yellow star graphic.

Advertisement for '2009년도 제17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2009 17th Batch of Student Recruitment for the Child Care Teacher Education Center). Lists details about the program, including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